



攝  
信  
慈  
實  
愛  
度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오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라-210 (동인·남구독로 15번길)

# 東友會報

1995年(檀紀4328年)2月13日 第169號 [1]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黃金朴  
明英性  
秀煥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은행지로번호 7500891

## 95년을 東國중흥의 해로 …



▲ 1995년은 동우장학재단의 빌족과 함께 학교발전주체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진은 23회 동국인의 밤 기념촬영모습.

## 동국인명록 제7집 발간

本會는 10萬 東國인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90년의 제6집에 이어 5년만에 東국인명록 제7집을  
발간, 현재 동문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제7집은 1908년 명진학교 졸업생부터 94년 졸업생까지 대학별·하과별·  
졸업년도별로 동문들의 현주소·직장 및 직위·전화번호 등을 수록, 명실상부한 東국인맥의 기록으  
로서 동문상호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결속을 다져주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대금 : 4만원

▲ 구입방법

① 本會사무국에서 직접 구입

② 통신판매처에 전화로 주문

\* 연락처 : 本會사무국 733-3991~3, 통신판매처 273-1509



# 동국 1백주년의 힘찬 거보를...

화합·결속 다지며 '동국인의 밤' 盛了

## 장내순여사에 감사패 증정



▲ '동국인의 밤'에서 감사패를 수상하는 장내순 여사.

本會(회장=黃明秀·53정  
치·國회국방외위장) 주최 '제  
23회 동국의 밤' 행사가 7일  
20일 오후 7시 호텔 소피텔 앤  
베서터 그랜드볼룸에서 대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영환本會사무국장의 사회  
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  
례, 각종 패 증정, 회장인사,  
축사, 쾌적절단, 연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향가지에서  
첨석한 5백여 동문들은 시종  
일관 회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서 담소를 나누며 충동창회 활  
성화를 약속했다.

黃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4년은 장학기금보금을 위한  
창극공연, 동국인 체육대회  
등을 비롯해 어느해보다 내실  
을 다쳤던 때였다"고 말문을  
열고 특히 우리의 동문은 아  
니지만 견실한 신심으로 한  
평생 고생을 하며 모은淨財  
를 모교에 기증한 장내순여  
사를 모시게 되어 더욱 뜻 깊  
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황회장은 "올해  
년 소 우리가 바라나지 않던  
장학재단이 설립될 것이며,  
이제 재단이 성쇠는 동문여러  
분의 손끝에서 결정될 것"이  
라고 장학재단 발전에 조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인의 밤' 행사의 절정  
을 이루 상패수여식에서는 12  
여여친을 보교 밀전기금으로  
기증한 장내순여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평생 전력해 온  
문태식(49사학·이주신업·주  
회장)·김성섭(53정치·주  
대동회장), 그리고 채란장학  
회 설립 운영에 노고가 큰 안  
세란(54국문·영석고등학교  
장)·부회장이 감사패를 수상해  
첨석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장내순여사는  
감사패와 함께 보교 민병진 총  
장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평  
생무료진료권을 증정받았다.

이어 영전 취임 등으로 동  
국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  
패 수여식에서는 ▲오진보(61  
법학·강원개발원장 취임) ▲  
김원식(61정치·홍제중학교  
교장 취임) ▲정재호(62정  
치·금정상호신용고교사장 취  
임) ▲정태수(75체육원·내부부  
차관판서 영전) ▲이해방(64화  
재·한국민국 과학기술상 수  
상) ▲선상규(72응생·대한민  
국 체육상 수상) ▲김태우(86  
체교·12회 아시안게임 텔레  
링 저지 100kg 금메달 획  
득) ▲이승배(대원재·아시안  
게임 복싱 미들급 금메달) ▲  
최병우(관경재·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소구경 단체전 및  
소구경 3자세 금메달)동문 등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본회 및 저희 발  
전의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  
상자는 ▲정민용(49문화) ▲  
김길정(56정치) ▲하두환(57  
임학) ▲유홍석(61국문) ▲박  
승정(63경제) ▲박길조(65농  
경) ▲최용환(67농학) ▲김석  
희(63법학) ▲공체홍(67경영)  
▲권오옥(68행정) ▲조규(77  
경원) ▲최재근(84정치) ▲박  
종철(87교원) ▲이도형(91자  
원) 동문 등을 비롯해 ▲기업  
광고출연비 1억2천만원을 기  
증한 연극영화학과 및 저희 ▲김  
부생(64연극) ▲고현정(94연  
극) ▲박연우(83국문·17대  
임원수첩 제작 기증), 칭궁공  
연에 크게 공헌한 ▲심희만  
(77연예) ▲김창래(84연영)  
▲정상철(72연예) ▲박성규  
(78연예) 동문 등이다.

각종 상과 시상식 직후에는  
10만 동국인의 회화과 결속을  
다지며 동국 1백주년의 거보  
를 향한 쾌적절단이 힘찬 축하  
의 박수속에 있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연회에  
들어가서는 MBC 개그맨으로  
활약중인 김종석동문의 사회  
로 홍운을 어things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죄형우동문을 비롯  
하여 이더화, 김무성동문 등  
이 출신하여 분위기를 고조시  
켜 보는 동문들이 3시간동안  
웃음을 잃지 않는 유쾌한 자리  
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들키기 위  
해 정상영(61법학·주) 금  
강·고려대학 부장·부회장이  
3백만원을 협찬한 것을 비롯  
해 안재란 부회장 등 150여 동  
문이 협찬금을 내고, 황명수  
회장, 최영우 시도위원, 노느  
원 이사장, 민병진 총장 등 20  
여명의 동문이 협찬 상품을 기  
증해 함께 자리한 동문들이 선  
물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 崔炯佑동문 名博수여

정치—교교발전에 대한 공로로



▲수여식 직후 부인과 포즈를 취한 최동문.

"최형우동문 명예박사워  
수여식"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모교 총장실에서 있었다.

유신반대투쟁과 민주화 및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마  
련된 이날 행사에는 본회 유  
주영수석부회장, 박익주상임  
부회장, 안재란부회장, 정재  
철고문, 박수천간사동을 비롯  
하여 모교교수들과 정·재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되었다.

최형우동문(63정치·本會  
지도원)은 민병천총장으로  
부터 학위를 수여받은 인사  
들을 통해 "영광에 앞서 막중  
한 책임감을 느낀다. 모교는  
민주화전쟁에서 회망과 용기  
를 주었으며, 민주주의신념을  
불태운것도 모교의 교훈덕분  
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이에 앞서 민병천총장은 학  
위수여식을 통해 "최동문은  
정치인문이라 고전분야에서  
만 이제 정치적 입지를 굳건해  
졌다. 정치·의회발전은 물론  
그동안의 학교발전에 대한 그  
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번자  
리를 마련했다"고 명예정치학  
박사학위수여의 취지를 설명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수여식 직  
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념  
오찬을 가졌다.

## 미당 서정주동문 팔순연

"남은 여생도 詩作에 전념할터"

미당 서정주동문 팔순축하  
잔치가 구립 21회 삼성동 인터  
콘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에서 6백여명의 축하객이 모  
인 가운데 열렸다.

本회(회장=황명수)와 모  
교 출신 문인 모인동국문학  
인회(회장=홍기심)가 공동주  
최한 이날 행사는 '미당 서정  
주 시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이어 축하연이 있  
었다. 축하연은 오녹원재단이  
사장, 민병천총장, 조경희에  
슬의전당이사장을 비롯한 문  
단인사, 학계·문화계인사와  
동창회 임원 및 제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자인  
사, 축사, 축수, 악령보고,  
'미당연구'원정식, 시낭송 순  
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미당 서정주동문은  
"남은 여생도 詩作에 바치겠  
다"며 나이장을 파시했다.

## 사무국 인사



본회  
사무국에  
서 만 5  
년간 간  
사로 재  
직해 오  
며 모교  
와 동창  
회 활성  
화에 노  
력 했던  
정연도(90경) 총분이 지난달  
14일자로 사임했다. 이에 따  
라 본회는 사업원 정동분이  
후임으로 최현희(88국문)간사  
를 같은 날짜로 인사발령하여  
새로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 비씨·장학카드, 국민·동문카드 발급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률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본회에서는 모교와 동문의 모교에 나누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비씨·동국대 장학카드와 국민·동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사용금액의 일정률(0.1%)이 후배들에게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민동문카드 발급안내 ◆회원가입자-모교를 출입한 분들로 국민신용카드(주) 회원자격 기준에 준하는 분 △각종 금융서비스-긴급 가제자금 대출 서비스, 카드론(이용심적에 따라 3백만원까지 지원대출), 현금서비스(국내-30만원, 해외-3천달러) △안전보장서비스-카드도난, 분실보상 서비스(신고전 15일부터 부정사용금에 전액보상), 해외여행 황공상해 보험 가입 서비스 △국민카드의 기타 월정 서비스 △신청방법-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동봉하거나 국민신용카드(주)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 △문의처-754-2000

◆비씨장학카드 발급안내 신청방법-현재 비씨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현재 회원인 경우에는 현카드를 장학카드로 교체발급이나 추가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신용구매서비스, 현금서비스, 동창회원대상 서비스, 카드론서비스, 비씨카드와 기타 서비스 △비씨카드 회원행운-조홍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한은행, 동원중앙회, 한국주택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 △문의처-520-443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해 주  
십시오.



대표 정상철  
(경영대학원 · 83)

강인도의회의원(교육사회위원회)

강원도 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평통자문회의 원주시 협의회장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대한나관리협회 강원지부장

강원도 원주시 원동 14번지(원주군청)

(사무실) 0371-42-2409 FAX : 731-2409

(자 택) 0371-42-2410 H·P : 011-361-2609

# 신년사



늘 본  
會의 발전  
을 위해  
협력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과  
10만 동문  
여러분.

동국중  
홍의 전환기가 될 乙亥年の  
회장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과 95년을 설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께 건승  
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참으로 다시다난했던 94년  
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대외적인 사건들이야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겠지만, 모  
교와 본회 내부에서 치루었던

일들도 여느해와 비교해 괄복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모금을 위해 실시했던 창

극 공연을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폭염이 창궐할 때 저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난해는  
성공적이었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부 지회별로 체육  
대회 및 축제를 개최했고, 지  
방의 동문님들을 벗고자 제 자  
신도 대구, 대전, 충북, 경주,  
울산 등지를 방문했으며, 해  
외업무자 남미순방중에 LA를  
비롯하여 해외지부도 찾아 보

았습니다.

특히 10월 경주에서 개최되

었던 '동국인 체육대회'는 우

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관  
심과 호응의 덕분이었음을 인  
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  
회에서는 전 동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성  
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의 '동국인의 밤' 행사  
에 여러분이 보내 주셨던 성원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경향  
각지 동문들의 참석으로 쇠장  
은 성황을 이루었으며, 각종  
협찬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행

사업에서 탈피해 개교 1백주  
년의 성장을 앞둔 명문사학에  
걸맞는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의 추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필두로 94년에서 넘겨진 사안  
들을 충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  
며, 농문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굳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교에서도 신학풍운동을  
비롯하여 학교를 쇠신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국발전기금모금도 70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교  
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신임총  
장의 선출도 회기롭게 이루어  
겠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본회와  
모교에 대한 동문여러분의 지  
속적인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  
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  
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  
리며, 새해를 맞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큰 열매맺을 큰 나무를 기를때

### 모교와 본회에 대한 애정은 '밑거름'

를 비롯한 사무국지원들과 공  
연 관계자들은 쉼없이 뛰어 다  
녔습니다. 그결과 2억3천만원  
이란 액수를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장학재단 설립을 신청해 며  
칠 후면 설립허가의 낭보를 듣  
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창회

리 동국인의 단결과 화합력을  
여실히 보여준 총회의 장이었  
습니다. 물론 10여년간 지역  
별로 모임들이 계속되긴 했지  
만, 지역의 벽을 뛰어넘고 선  
후배의 거리감을 극복하여 전  
국적인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한 것은 조류의 일이었습니다.

사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거두었던 결실들을  
어떻게 다시 씨앗으로 변환시  
켜 더 큰 열매를 맺을 나무로  
키워 나갈 것인지가 저의 고민  
이며 사업계획의 관건입니다.  
이제 단절적이고 일년 단위로  
나누리되고 있는 근시안적인



代表理事 沈洙根  
(92年 行政大學院卒)

## 기술의 선구자

# 청송전기

"슬기롭고 자랑스런 東國의 동문들이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東國人이 되자!"



□원자력발전소전기공사 □수화력발전소전기공사 □ROBOT설치공사 □PLC자동화공사 □공장PLANT공사

본사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158-3번지

TEL : (0522) 76-6000~2

FAX : (0522) 71-3918

서울사무소 : (02) 555-9568

울진원자력사업부 : (0565) 82-4481

월성원자력사업부 : (0561) 44-7446

현대자동차사업부 : (0522) 87-2071

--영업안내--

- 1) EXPOSED CONDUIT INSTALLATION
- 2) CABLE PULLING & DUCT INSTALLATION
- 3) CABLE PULLING & TERMINATION
- 4) INSTRUMENT & CONTROL
- 5) LIGHTING INSTALLATION
- 6) SWITCH YARD 설치공사

# 各支部 모임 活潑

## 송년회·신년회 가져

### 20년지 발간 등 사업반추

#### 경영대학원 동창회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구사선·(주) 대우주택 대표이사) '송년의 밤'이 구립 17일 여의도 63빌딩 커먼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동문, 내외인사 등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열렸다.

강운석 서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축하예, 입원부 수여, 회장인사, 총동창회장 및 경영대학원장 축사 등 1부 행사와 연회에 이은 행운권추첨의 2부 행사로 진행돼 94년 한해를 보내며 송구영신하는 동문들이 회기애에 함으로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구자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해동안 모교 문화관련 링기금 1억7천1백만원과 동창회기금 1억5천만원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전 동문들께 감사한다"고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동창회가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황명수 회장은 "모교와 동창회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단결·발전하는

모습에 대해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 전 동문을 대표하여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으며, 조회경영대학원장도 "지난 2년간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경영대학원 20년지 발간'에 동창회에서 적극 후원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모교를 사랑하는 동창회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 위촉된 김종국이사 외 1명과 경영대학원동문으로 처음 취임한 국제리온스클럽KCC지구총장 한석자문위원, '전국 바르게 살기 운동' 종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유한종부회장이 축하패를 수상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구자선회장과 이정진준비위원장이 각각 5백만원, 최종운부회장 2백만원을 비롯해 34명의 동문이 2천3백45만원의 현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장성모부회장이 이조 도요 빙설바지를, 양태석동문이 산수화를, 김철수이사가 목마거상 한시를 후원하는 등 22명이 1천여만원의 상품을 기증해 당첨된 동문들을 흥롭게 했다.

한편 경영대학원 동창회 '95년 신년교례회'가 지난달 9일 한남동 연회장에서 8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동창회발전을 다짐했다.

### 대전·충남 총회 신윤표 신임회장 선출

## 美LA지부서 찬조금 전달도

'94년 대전·충남지부 총회 및 송년의 밤'이 구립 26일 남기주 동문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개최됐다.

本會 황명수회장과 박태권부회장, 김영환사무국장을 비롯해 260명의 동문 및 가족이 함께 자리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신윤표(65행정 한

남대교수)를 선출하는 등 임원개선이 있었다.

이어 2부연회에서는 남기주 동문회의 김경희회장, 김기성·이민희·이성화회장, 이성하부회장이 지부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찬조금(7백만원)을 대전·충남지부에 전달해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을 통해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여러분들의 소원성취와 행운을 기원하며, 올 한해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황명수회장도 "동국인의 슬기로 모아 1백주년을 맞게되는 모교를 위해 동문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종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주력하자"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신회 회원들이 함께 결합해 모임을 한층 더 빛내주었다.

한편 앞서 구립 14일에는 '동문의 밤'이 티워홀 웨딩비움에서 교수, 동문, 재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閔丙天총장, 安秉浩수석부회장, 爲光慶원장, 金英煥 本會사무국장, 玄星斯님 등이 자리에 함께 했으며, 축하패는 행정학부 박사학위를 받은 신성섭동문이, 자랑스런 동문상패는 李明皓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지회봉은 여단장에 취임한 金泰仁동문과, 사단장에 취임한 李廷규·이종간동문, 연대장 취임 김재옥동문에게 전달되었다.

### 신년교례회 성황

####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회장=김찬희·서울시의원)은 '95년 신년교례회'를 지난달 12일 타워호텔 스팸스에서 황명수本會 회장, 유광진원장, 정윤무前원장, 최상용·윤일근·박경희·자문위원, 안병호·수석부회장동 70여명의 동문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모든 동문들이 각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았으며,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황명수회장과 모교입시판계로 여력이 없을 정윤무교수와 유광진원장의 참석은 동문들의 귀걸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축하폐증정, 회장인사 및 축사, 축하계적질단, 상호인사 및 만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하패는 지난해 김영삼정부수석부회장과 정부제2장관에 선임된 金長淑동문, 國防部次官에 선임된 李延麟동문에게 증정되었다.

안병호수석부회장은 인사말

### 새 회장 임태호同門

#### 제주지부

제주지부(회장=임태호·제주전문대 교수)는 '정기총회'를 구립 10일 제주시 연회장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임원개선, 사업계획서승인 및 동창회제반업무보고를 주요안건으로 열린 이날 종회에서는 고문에 고진호, 김영주, 김병오동문이 회장에 임태호동문이, 부회장에 죽경희(제주온행동문지점장), 문홍식(제주물산대표), 문찬식(동산동파이프 제주대리점대표), 주인석(그레이스관광호텔대표)가, 김사에 김원방(제주한림중학교 교사), 오성규(대한화제제주지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제주지부를 신도직으로 이끌고 있는 동우회(회장=김병오·제주도·농촌지도소장)는 지난달 7일 제주시 연동 성미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 부부동반 친목도모

#### 강서지회

강서지회(회장=尹澤·66경제·부국요업(주) 대표이사)는 '94년 송년의 밤'을 구립 9일 강서구소재 우장堇에서 부부동반으로 개최해 동문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7시부터 4시간동안 줄곧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신승길(63경제·시민연합회이사장)동문이 내빈자격으로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그밖에 서성래(63농생)동문·중랑지회장이 터울 30배를, 서수일(65경영·국제생명(주)상무)동문이 카렌다 및 다이어리를 송년기념품으로 기증했다.

한편 강서지회는 해가 바뀐 지난달 9일 방화동소재 일식집 '大河'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체영현동문의 주관으로 준비된 이날 행사는 박승정교문, 오승태교문, 윤택회장 순으로 강서동문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단배식을 갖는 등 지회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이 되었다.

### 行試합격 同門 축하도

####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동문회는 구립 3일 오후 5시부터 출업생 및 재학생대표 등 25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모교 다향관에서 '94 송년도모임'을 가졌다.

本會 김영환사무국장은 황명수회장을 대신해 경찰과동문회의 단합대회를 축하하는 환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94경행인 빛낸 얼굴'에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인 김영환동문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으며, 원로 및 재직교수에게 위로선물이 지급되기도 했다.

### 인천지부 송년모임

인천지부(회장=최경식·56정치·부평전기엔지니어링 회장)는 구립 9일 뉴코아백화점에서 원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94년 중간결산보고 및 재정보고를 벗었다.

### 2백여동문 성시

#### 부산지부

부산지부(회장=金尚勳·81행원·부산일보주필) '동국인의 밤'이 구립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2백여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1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에 맞이려는 동문들의 대거참여로 성시를 이루었다. 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5년은 동국인의 단합으로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東國人象을 발휘하자"고 강조하고

"즐거운 때나 괴로울 때나 상호협조와 유대를 다지기 위해 새해에는 다양한 동문모임을 갖자"고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공로패수여식에서는 동창회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경길(57경제)·前회장이 총동창회장을; 이용범(65·(주)오양대표)·부회장이 부산지부회장을 각각 수상했으며, 최윤종(68경제·선회여상주임), 박고홍(일원·만덕시주지), 조민수(77경제·건설회사대표), 안재호(87한의·안한의원장), 김석구(76법학·중부경찰서), 이경건(대원·전무)동문도 공로패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신년하례겸 강연회

####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박이주·61정치)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용산소재 국방부관에서 '신년하례회' 겸 朱冠中교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한편 제주지부를 신도직으로 이끌고 있는 동우회(회장=김병오·제주도·농촌지도소장)는 지난달 7일 제주시 연동 성미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2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올해년도 동창회발전을 위해 노력

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축배를 들었으며, 朱교수는 이에 앞서 '민족과 세계화' 제하의 강연을 했다.

### 수원지부 송년모임

#### 수원지부(회장=남평우·59경제·국회의원)

수원지부(회장=남평우·59경제·국회의원)는 구립 22일 오후 6시 30분 수원시 소재 청원부회에서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동대문중랑지회

#### 송년의 밤

동대문·중랑구지회(회장=서성래·63생물·배봉어린이집원장)는 94년을 미루리하면서 구립 28일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관광호텔 장미홀에서 '송년'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정환(60국문·동대문부고교장) 고문과 김영구(62경제·국회의원) 고문,

本會 김영환사무국장·윤택회장 순으로 강서동문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단배식을 갖는 등 지회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이 되었다.

### 광주·전남 송년회

#### 광주지부(회장= 이상진·60법학·(주)대인 대표)

광주지부(회장= 이상진·60법학·(주)대인 대표)는 '94년 송년도모임'을 가졌다.

本會 김영환사무국장은 황명수회장을 대신해 경찰과동문회의 단합대회를 축하하는 환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94경행인

빛낸 얼굴'에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인 김영환동문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으며, 원로 및 재직교수에게 위로선물이 나누면서 우의를 다졌다.

충천지부 신년회

충천지부(회장=김대식·67정치·금성시충천대리점대표)는 지난달 20일 신년회를 개최했다.

회기계에서 지도적인 인물이

꽤 즐겼"을 당부했다.

### 산업기술대학원 동호대학 방문

#### 本會 서성래이사 주선으로

산업기술대학원은 本會 서성래이사(63생물·배봉어린이집원장)의 주선으로 신호선원장(대학원원장), 박용국·이진구부부장, 나병우교장 등 원생들을 대동하고 해외연수차 대민의 동호대학에 다녀왔다.

서동문을 비롯한 원생들은

동호대학원과 활동상을 소개받았으며, 신호선원장이

교의 역사와 전통 및 현황을 전했다.

이곳에서 통역은 대민정치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해

양대학원이자 李在方교수가

맡아주었으며, 저녁에는 산업

기술대학원 朴容熙교원장이 주

선행연회에 林秋山·박자(김갑원·김갑원)와 이재방교수를

비롯한 원생들이 참석해 뜻깊

은 시간을 보냈다.



▲ 구립 10일 개최된 '제주지부 정기총회'

▲ 63빌딩 국제회의장서 구립 12일 열린 '경영대학원 동창회  
송년의 밤'▶ 구립 22일  
'동국인의 밤'에  
서 포즈를 취한  
황명수 本會 회  
장(중앙)과 남  
평우 수원지부  
회장(좌측) 및  
임원들.

## 지부지회

'94  
송년행사

## 화보

▲ 모교 다향관서 구립 3일 열린 '경행과 송년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의 표정이 밝다.▲ 목원타원서 구립 9일 개최된 '전북동창회 동국인의 밤'  
공로패 수여식 장면◀ 티워호텔서  
구립 14일 개최  
된 '행정대학원  
동문의 밤'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오정석(2기 · 벤엘한의원 · 86卒)

부회장 정인배(2기 · 정인배한의원 · 86卒)

김재현(2기 · 명신한의원 · 86卒)

총무 송상화(4기 · 상화한의원 · 88卒)

재무 이동화(4기 · 진한의원 · 88卒)

**한의과대학동창회 6대 회장단 및 임원일동**

## 제23회 동국인의 밤에 보내주신

## 열화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lt;협찬금 내역&gt;

▲정상영(61법학·(주)금강·고려화학(주) 회장)=300만원  
 ▲구자선(81경원·태우주택 대표이사)=100만원  
 ▲김재기(60경제·한국종합유산방송협회 회장)=100만원  
 ▲남명우(59경제·국회의원)=100만원  
 ▲오녹원 이사장=50만원  
 ▲이철홍(67법학·대한승유관공사 사장)=50만원  
 ▲황명수(55정치·本會 회장, 국회국방위원회)=50만원  
 ▲안계란(54·국문·영석교과 교장)=20만원  
 ▲손운정(68정치·제일투자금융(주) 상무이사)=10만원

▲김재진(63경제·前 고속도로시설공단 사장)=10만원  
 ▲김진문(71경영·신성약품(주) 대표이사)=10만원  
 ▲김상록(60국문·목천화원 대표)=5만원  
 ▲유근평(50국문·대한주택협회 회장)=10만원  
 ▲김용구(71농학·(주)코아타운 대표이사)=10만원  
 ▲최병근(86경원·(주)혁진전자 대표이사)=10만원  
 ▲홍치우(63불리·모교교수)=10만원  
 ▲이기화(59경제·회계사·모교감사)=10만원  
 ▲이윤심(79원활·서울직물공업사 대표)=10만원  
 ▲김기준(61경제·삼정당 대표)=10만원  
 ▲동승회(성ジ경)=5만원  
 ▲신상두(64법학·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5만원  
 ▲박승정(63경제·강서의료보험조합 회장)=3만원  
 ▲정재호(62정의·일양상호신용금고 사장)=20만원  
 ▲이석용(58정의·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10만원  
 ▲김윤종(73정의·신성금고제작소 부사장)=5만원  
 ▲정해수(49사학·선창산업(주) 회장)=20만원  
 ▲장성일(69상화·동화은행 인사부장)=10만원  
 ▲이중식(57경제·삼아무역(주) 대표이사)=10만원  
 ▲김재국(61경제·강남고려병원 이사장)=5만원  
 ▲최세화(56국문·모교교수)=5만원  
 ▲김종일(58법학·경찰공제회 이사장)=5만원  
 ▲김용정(59철학·모교교수)=5만원

▲이창억(52정치·대한빙상경기 연맹 감사)=2만원  
 ▲황승민(63상화·(주)진양 회장)=30만원  
 ▲최신길(65농학·진양수산봉동(주) 대표이사)=10만원

▲박수석(57입학·의정부고교 교장)=10만원  
 ▲정상철(83경원·삼화당한약방 대표)=10만원  
 ▲김정환(60국문·동대부중 교장)=5만원  
 ▲박찬대(62농학·고려제이드 대표)=5만원  
 ▲임영신(57경제·성덕실업(주) 대표이사)=5만원  
 ▲이무영(71행정·서울경찰청 형사부장)=5만원  
 ▲이인진(62법학·청량실업교과 학생부부장)=3만원  
 ▲조경근(65상화·공인회계사)=3만원

▲김진찬(62법학·대우통신(주) 부사장)=50만원  
 ▲문태식(49사학·이주산업(주) 회장)=10만원  
 ▲조희영(63경영·교도경영대학원장)=10만원  
 ▲박종구(65경영·중소기업은행 공통통지점장)=10만원  
 ▲홍사현(63사학·한미증기 대표)=10만원  
 ▲안찰환(52경제·동아그룹 고문)=10만원  
 ▲유지홍(74정의·지구촌관광 대표)=10만원  
 ▲곽재영(59국문·(주)인천위생공사 대표이사)=10만원

▲권경섭(64국문·태영교역(주) 대표이사)=10만원  
 ▲이한성(66불교·한국불교교사협회 회장)=10만원  
 ▲이준립(62경제·천일주택(주) 대표이사)=10만원  
 ▲문원식(83행정·상여대 교수)=5만원  
 ▲조석영(62국문·MBC연수부 부국장)=3만원  
 ▲박종윤(59경제·국제특수금속(주) 대표이사)=10만원  
 ▲김종우(66법학·상업은행 선농지점장)=10만원  
 ▲김경남(66정의·양지사 대표)=10만원  
 ▲장명근(64법학·법제연구원 원장)=5만원  
 ▲유수택(64경영)=5만원  
 ▲송재운(64철학·모교교수)=3만원  
 ▲유현복(49문화·모교교수·영화감독)=5만원  
 ▲이상평(66영문·한미은행 원효로지점장)=5만원

▲서영준(68법학·동해화학공업(주) 대표이사)=20만원

▲한대현(91경원·대경전지통신(주) 대표이사)=10만원  
 ▲유광진(64정의·모교 행정대학원장)=5만원  
 ▲이경원(68상학·한국언어개발원 이사장)=20만원  
 ▲김성수(68경행·용인부대장)=10만원  
 ▲김서영(73경행·해양경찰청 경비부장)=3만원  
 ▲박문제(85불리)=10만원  
 ▲문영일(58정의·前 한전부사장)=10만원  
 ▲단창호(75원활·진주류류수한회사 회장)=10만원  
 ▲최용관(64상학·광주지방국세청장)=5만원  
 ▲안병조(70경제·(주)서주종합건설 대표이사)=10만원

▲김익호(90정원·MBC보도국 부상)=10만원  
 ▲황용경(54경제·동부증권(주) 대표이사)=10만원  
 ▲고경옥(78원활·해양경찰청 기획감사과장)=3만원  
 ▲차문희(79정의·국가문제연구소 주요위원)=5만원  
 ▲전창원(57경제·교도대학원장)=15만원  
 ▲임천운(54국문·동국서림 대표)=5만원  
 ▲박현성(75원활·대한불교청소년 교육연합회)=20만원

▲이창규(65경영·동강부역(주) 대표이사)=10만원  
 ▲안병호(82원활·(주)신진철강 대표이사)=10만원  
 ▲이형진(85경원·대성강판인쇄(주) 대표이사)=10만원  
 ▲이규호(65불리·송파구청 세무과장)=5만원

▲지워재(58경제·산천개발(주) 회장)=9만원

▲인종진(59영문·하지공업(주) 대표이사)=10만원  
 ▲이운경(67정의·(주)세종중기 대표이사)=10만원  
 ▲권석중(70정의·서울종합터미널(주) 전무)=10만원  
 ▲오상운(58법학·(주)금아산업 대표이사)=10만원  
 ▲정낙진(83원활·광주남부경찰서장)=3만원  
 ▲조재호(65불교·모교전산원장)=5만원

▲이화일(65상화·조선대학(주) 부회장)=30만원  
 ▲신영남(67불리·대구대학교 교수)=10만원  
 ▲김성태(79원활·일광공

구 공업(주) 회장)=10만원  
 ▲노병준(72상화·윤목종합가구 대표)=3만원  
 ▲정현화(66상화·태화기업(주) 대표이사)=20만원  
 ▲조정환(49사화·남도산업(주) 대표이사)=20만원  
 ▲공진식(61경제·(주)태창유리 대표이사)=20만원  
 ▲박선영(65불교·모교교수)=10만원  
 ▲김윤목(93원활·한국뉴머신(주) 대표이사)=20만원  
 ▲이시우(93원활·종로례코드사 대표)=20만원  
 ▲이재철(67경제·세무사)=5만원  
 ▲이준근(76상학)=10만원  
 ▲허길남(67농생·경남가든 대표이사)=20만원  
 ▲장형식(60정치·금강특수인쇄(주) 대표이사)=10만원

▲이홍남(63정치·삼일코리아(주) 대표)=10만원  
 ▲육기동(65식공·삼성콘크리트공업(주) 대표이사)=10만원  
 ▲조창원(57경제·세진문화사 대표)=5만원  
 ▲김칠규(86경원·백상숯불갈비 대표)=30만원  
 ▲이상민(69원활·태림상사 한국·호주 진선협회 부회장)=10만원  
 ▲우순이(60정치·협상화공(주) 대표이사)=30만원  
 ▲윤재룡(80법학·광주지검 검사)=5만원  
 ▲조성운(65경제·I·R·C 대표이사)=10만원  
 ▲강창순(60불교·모교관리처장)=3만원  
 ▲정대진(63법학·세무사)=5만원  
 ▲양정호(81원활·다우통상(주) 대표이사)=10만원  
 ▲동영회(최석·61영문)=10만원  
 ▲왕표순(55정치·송곡고등학교 교장)=10만원  
 ▲이제곤(68경제·(주)스텐다드 대표이사)=20만원  
 ▲민병진(58원활·모교총장)=1백만원  
 ▲정병림(86원활·신영산업운수(주) 대표이사)=10만원  
 ▲홍정도(62정치·남양판광(주) 대표이사)=5만원  
 ▲명희섭(81원활·민주당인천구구당 위원장)=5만원  
 ▲윤홍섭(64경영)=3만원  
 ▲임화(55법학·아남상회 대표)=2만원  
 ▲송인식(68정치·세계일보 정치부장)=3만원  
 ▲국회동우회(10만원)  
 ▲탁연복(64법학·한진종합건설(주) 인천지점장)=10만원  
 ▲대전지부=10만원  
 ▲김대영(경원在)=10만원  
 ▲정선보(66입학·동부경찰서 정보과장)=10만원

◇상무이사 회비(단위: 만원)

▲정재기(69정치)=20

▲정태수(73원활)=20

▲최병원(60정치)=20

▲최종합(58정치)=20

▲홍원표(68정치)=20

▲계 400

누계=1,540

▲백광수(72화학)=20

▲서영준(68법학)=20

▲유기동(65식공)=20

▲윤대홍(61정치)=20

▲윤행운(65정치)=20

▲이석기(67법학)=20

▲이윤심(79원활)=20

▲김기준(61경제)=20

▲인중식(57경제)=20

▲정병림(86원활)=20

▲김대원(68경영)=7

▲장우상(67정치)=7

▲김기동(68정치)=7

# '94 한해를 되돌아 보며...

## 학술 문화관 기공

▲모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지는 동국학술문화관 기공식이 지난 3월 17일 舊동국별관 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신축 학술문화관은 대지 986 평, 연간평 5,376평에 지상3층 지하2층, 주탑1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외장을 회강석 및 복층유리로 꾸며지며 8개 대학원, 1개 단과대학, 예술대 강의실·실기실과 행정사무실, 법당, 5백석 규모의 중강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 동우장학재단 탄생 눈앞에

▲10만 동문을 비롯하여 전동국인의 협회였던 장학재단 '동우장학회'가 2월 내로 발족된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본회에서는 지난 7월 청탁공연을 통해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동문들을 대상으로 장학기금모금을 벌였다.

## 10만 동국인의 역사, 인명록 7집 발간

▲90년 동국인명록 제6집이 발간된 이후 민5년만에 새 인명록이 제작되어 동문들의 수요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인명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94년 초부터 실시된 동문파악작업을 통해 1천8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결실을 거두었으며, 명진학교사집부터 94년 졸업자까지 수록돼 있어 살아있는 동국역사라 할 수 있다.

## 사상 최초 기금마련 문화사업 개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목적으로 전국대학동창회사상 최초의 이벤트인 창극 '하늘에 핀 누두꽃'이 성공리에 공연되었다. 실히만동문을 비롯한 동문스텝들의 열성적인 노력, 맹창 은회진씨를 비롯한 1백여출연진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 창극공연을 통해 2억3천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공연은 본회가 능동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활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 동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숙원사업이었던 장학재단의 설립을 가시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여전히 열기띤 동국인의 밤

▲제23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구립 20일 호텔 소피텔 엠버서더 그랜드볼룸에서 5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에 12억원 상당의 빌전기금을 기부한 장내순여사에게 감사패와 모교병원의 평생무료 진료권이 전달되어 참석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문예식고문, 김성섭고문, 안체란부회장등이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30여명의 동문이 축하패와 공로패를 수상했다.

## 채란 장학회 발족

▲본회 안체란부회장이 모교 재단이사로 영입되면서 공약했던 채란장학회가 지난해 2월 14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2학기부터 모교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연간 20명의 모교 여학생들에게 각 6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채란장학회는 모교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능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인 안체란동문은 영석중·고교의 설립자인 동시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석장학회를 통해 381명, 기타 58명을 포함해 총 939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 사회발전과 함께 본회 부회장으로 동국중흥에 힘쓰고 있다.

## 동국인체육대회 전국규모 확대

▲제11회 동국인체육대회가 10월 29일 5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창회장 은바쟁탈 영남동문 친선체육대회'로 출발, '영-호남 체육대회'를 거쳐 올해 전국적 행사로 정착 된 이번 체육대회에는 서울 총동창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포항지부, 지역개별대학원, 경주직할동창회 및 재직동문회 등 총 7개팀의 동문들과 대전, 충북지부의 임원들이 참가했다.

## 13대 총장에 송석구 동문 선출

▲모교 제13대 총장에 송석구동문(62철학·본회상무이사)이 선출되었다. 송동문은 출마동기에 대해 "모교 건학 이념의 현대적 조명으로 높은 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 자리이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모교에 발전적 모색으로서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지확장 및 의대·한의대 부속병원(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여 1백주년을 앞둔 모교의 위상을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대학으로 종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분당 한방병원 기공, 96년 준공

▲분당 한방병원 기공식이 지난 5월 27일 거행되었다. 이 병원은 92년 3월 의료시설용지매입시작으로 병원 신축추진계획·설계를 거쳐 5월 12일 주식회사 서광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신축병원은 연간평 2천2백45평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로 병상 1백개와 강의실·교수연구실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서며, 공사기간은 약 1년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 동국문학의 경사 미당선생 팔순

▲'미당 서정주선생 팔순잔치'가 본회와 동국문학인회 공동주최로 구립 2일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미당 서정주 시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 이어 축하연이 있었다. 축하연에서 미당 서정주동문은 "남은 여생도 시작에 바치겠다"며 노의장을 과시했다.

<6면에서 이어짐>	▲서시용(67행정)=7	▲이무영(71행정)=7	▲조창현(68경행)=7	▲김동석(64법학)=15	▲김학력(91경원)=15	▲배경환(89경원)=15
▲김종일(58법학)=7	▲서정수(68정치)=7	▲이상평(66영문)=7	▲조희재(67식품)=7	▲김동오(92경원)=15	▲김형상(82물리)=15	▲배우승(89화이)=15
▲김종희(71일학)=7	▲송상현(58수학)=7	▲이영자(63불교)=7	▲지홍재(58경제)=7	▲김두우(62경제)=15	▲김형진(80행원)=15	▲배용정(70행정)=15
▲김진원(65경영)=7	▲송석구(62철학)=7	▲이영화(54법학)=7	▲자주희(66서예)=7	▲김문식(71경원)=15	▲김효중(86한의)=15	▲배태준(81무역)=15
▲김진찬(68경영)=7	▲신돌영(73법학)=7	▲이윤근(81경행)=7	▲최광현(71경행)=7	▲김민구(92환경)=15	▲나운용(82법학)=15	▲서기원(64경계)=15
▲김종훈(65상학)=7	▲신민선(63정치)=7	▲이정순(84경행)=7	▲하진수(65경치)=7	▲최병곤(80경원)=7	▲김병우(69운생)=15	▲남정철(92경원)=15
▲김호남(71법학)=7	▲신신길(63경제)=7	▲이정우(63법학)=7	▲하진수(65경치)=7	▲김상숙(76내원)=15	▲노영철(92경원)=15	▲서성식(81환경)=15
▲김효덕(81경계)=7	▲이종범(63법학)=7	▲이우형(65경계)=7	▲하영숙(58정경)=7	▲김성숙(94경원)=15	▲리운정(91통계)=15	▲성기호(65상학)=15
▲김희오(64경계)=7	▲심현설(65경계)=7	▲이주형(65경계)=7	▲허필국(60영문)=7	▲김성수(92경원)=15	▲맹영호(82농경)=15	▲성도영(80경원)=15
▲남도영(52경계)=7	▲안경조(70경계)=7	▲이창열(52정치)=7	▲홍포표(60법학)=7	▲김성수(85경원)=15	▲문남희(85연예)=15	▲손운태(88회계)=15
▲노병준(71사학)=7	▲안정호(66정치)=7	▲이한우(85교원)=7	▲홍성숙(65불교)=7	▲김영우(59국문)=15	▲방대현(81행정)=15	▲신기호(52국문)=15
▲노지수(82영문)=7	▲오상홍(58법학)=7	▲이현표(92행원)=7	▲게	812	▲김영호(72경행)=15	▲노영철(62정외)=15
▲문순구(72화학)=7	▲왕표순(55정치)=7	▲이희일(63정치)=7	▲하진수(65경치)=7	▲김용근(64경계)=15	▲박동운(74경경)=15	▲신박문(93회계)=15
▲박낙원(61정치)=7	▲원유형(67영문)=7	▲원인희(67정치)=7	▲한영숙(58정경)=7	▲김용근(64경계)=15	▲박동운(74경경)=15	▲신연수(65경계)=15
▲박남규(69행정)=7	▲원장연(71상학)=7	▲임창우(56경계)=7	▲임경철(80경원)=7	▲박선현(83경원)=50	▲박선현(83경원)=15	▲신데원(67법학)=15
▲박승준(63경계)=7	▲유지홍(74정치)=7	▲장학길(70식공)=7	▲강득원(88회계)=15	▲김용범(88간공)=15	▲박성희(78경계)=15	▲신현재(67연예)=15
▲박세상(80행원)=7	▲유현목(49문화)=7	▲전영화(69경행)=7	▲강명호(87경원)=15	▲김용수(60농경)=15	▲박승현(91화공)=15	▲심상렬(90경계)=15
▲박종국(65행정)=7	▲윤동식(71상학)=7	▲전원박(67통계)=7	▲강인순(87경원)=20	▲김인보(82경원)=15	▲박양희(91경원)=15	▲심봉식(59법학)=15
▲박종중(59경계)=7	▲윤연상(75원경)=7	▲전유자(67경원)=7	▲전유주(67농생)=7	▲김정기(86회계)=15	▲박재현(64경계)=15	▲인병원(72토공)=15
▲박준이(61법학)=7	▲윤천경(66농학)=7	▲정경철(80경원)=7	▲강종주(91정외)=15	▲김정자(90경원)=15	▲박영호(70상학)=15	▲인영근(61불교)=15
▲박준우(62법학)=7	▲윤홍섭(64경계)=7	▲정연수(74교과)=7	▲강충우(84토공)=30	▲김정호(74경계)=15	▲박용민(69영문)=15	▲인정원(86대원)=15
▲박진수(63국문)=7	▲이영(67정치)=7	▲정연찬(84경계)=7	▲강태인(71경영)=15	▲김종우(94경계)=15	▲박용준(61경계)=15	▲이현철(66농학)=15
▲박진원(66경계)=7	▲이경순(64법학)=7	▲조만행(70경영)=7	▲곽종희(70상학)=15	▲김지난(85경영)=15	▲박장우(93영문)=15	▲양규첨(68농학)=15
▲박철원(93경원)=7	▲이경현(88상학)=7	▲조조현(81경원)=7	▲구본영(70상학)=15	▲김준우(71경영)=15	▲박재현(90자원)=15	▲오규석(94한의)=15
▲박현우(83국문)=7	▲이광우(56불교)=7	▲조병봉(67대원)=7	▲김경석(63경계)=15	▲김경현(60경계)=15	▲박종구(81행원)=15	▲오구원(82회계)=15
▲배종대(62철학)=7	▲이규호(65물리)=7	▲조성영(62영문)=7	▲김재현(71경영)=15	▲김태훈(90영문)=20	▲박주현(49사학)=15	▲오주원(61정의)=15
▲백영철(62법학)=7	▲이동우(61법학)=7	▲조성면(67경영)=7	▲김광평(70경계)=15	▲김준서(74경정)=15	▲박준운(73행원)=15	▲옥봉구(73행원)=15
▲변태원(63법학)=7	▲이명용(64정치)=7	▲조재호(65불교)=7	▲김기환(83경원)=15	▲김택근(60경외)=15	▲박준운(63경원)=15	▲우경수(88경원)=15
▲변태원(63법학)=7	▲조재호(65불교)=7	▲조재호(65불교)=7	▲김기환(83경원)=15	▲김택근(60경외)=15	▲박준운(63경원)=15	▲우경수(88경원)=15

# ‘신학풍운동’ 보경 전개

## 95년 1학기부터 인성교육 강화, 면학 풍토 조성

모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와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신학풍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8일 본관앞에서 黃明秀本會 회장, 閔丙天 총장, 宋錫球·金甲周·부총장, 朴芻柱本會 상임부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풍운동본부’ 결성식 및 현판식이 있었다.

이날 閔丙天은 ‘신학풍운동’ 선언문을 통해 “최근 일어나는 비교육적 학원풍토와 비현실적 사회현상 등은 인성교육의 부족과 면학의식 결여의 산물”이라면서 “교수와 학생 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대학을 만드는데 불교 종립대학인 우리 대학이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黃

회장은 격려사에서 “모교에서 신학풍운동을 제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동창회도 적극 동참하여 동국발전에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학풍운동은 ‘명랑한 학교’ ‘깨끗한 캠퍼스’ ‘충실했던 강의와 연구’를 통해 ‘맑고 거제로운 우리대학’ ‘알차고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적 목표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인성교육을 위해 △‘선과 인간’ ‘명상과 자연’ ‘논어와 예기’ 등 3개의 교양과목(2학점)을 개설, 95학년도 신입생들부터 이중 한과목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신입생들 중 회방지에 한해 여름방학기간 중 3박4일간 산

시에서 견학이념 특강, 죄선 실습, 고승대덕특강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동국발전에 총력

#### 本會 시무식

본회에서는 지난달 4일 황명수회장을 비롯해 유주영수 석부회장, 박의주상임부회장, 임덕규 지도위원, 안계란부회장, 이석용부회장, 김재구부회장 등 30여명의 지도위원, 회장단, 분과위원회 및 감사가 모인 가운데 회내 사무국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황명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로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우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임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올해년에도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 해 줄것을 당부”했다.

## 4개 단과대, 고양으로 이전

## 자연과학, 예술캠퍼스로 집중 육성

모교 서울캠퍼스의 이공·공과·생명자원과학·예술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이 경기 고양시 신사동으로 이전, 고양캠퍼스로 설립된다.

경기도는 모교 현재의 서울캠퍼스부지가 협소해 의사당 일대에 14만7천2백72평의 부지를 마련해 4개 단과대학을 이전시키고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4년제 대학의 신규설립은 불가능이나 기존 대학의 이전은 가능하도록되어 모교의 일부 단과대학 이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교는 고양캠퍼스를 자연

과학 및 영상예술 캠퍼스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 中國 서북대학 방문

#### 민병천 총장

모교 민병천총장은 구립 16일부터 20일까지 교류협정체결을 위해 중국 서북대학을 방문했다.

학교방문, 서북대학총장 및 국제교류위원회와의 회의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기대했던 교류협정체결은 올 8월로 미뤄졌다.

한편 모교 지역연대대학인 대정대학에 새로 취임한 오다슈신이사장은 양교의 보다 나은 관계개선을 위해 구립 24일부터 27일까지 모교를 방문했다.

### 유적발굴조사 마쳐

#### 경주캠퍼스 박물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황상주)은 구립3일 황성동 고분군 유적발굴조사를 마쳤다. 경주중심지역 중 3세기경 무덤의 대규모 발굴조사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시작되어 2개월여의 작업끝에 △유구포탕묘, 목관묘, 은관묘 등 49기 △토기·전토기, 도질토기, 영질토기 등 △철기 △장신구 등을 출토해냈다.

이번 발굴조사는 신라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황관장은 “조사한 지역 외에도 주위에 많은 유적이 밀집분포된 것이 확실해 앞으로 이 지역 문화유적보존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 새 총장에 宋錫球동문

## “명문사학 중흥에 진력할 터”

모교 제13대 총장에 송석구 동문(62 철학·부총장·本會 상무이사)이 선출돼 현재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민태진, 오형근, 김인제, 조희영, 홍치유, 박준학 후보들과 경험을 벌인 지난달 15일 교수회임시총회에서 1위에 당선된 宋동문은 2위 조희영(경영대학원장) 등과 함께 재단 이사회에 선임요청되었으며, 지난달 25일 개최된 재단이사회를 통해 최종으로 총장내정자로 결정되었다.

宋동문은 출마동기에 대해 “보고 견학이념의 원칙적 조명으로서 높은 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자리이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모교를 발전적 모색으로서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지학장 및 의대·한의대·부속병원(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여 1백

주년을 앞둔 모교의 위상을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대학으로 ‘중흥하기 위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총 66억원 모금

#### 동국발전기금

개교 100주년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동국발전기금으로 지난 11월현재 총 66억여원이 모금되었다.

이를 발전기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동국학술문화관 건립기금 총 15억여원을 비롯하여, 병원건립 및 정학사업을 위해 기탁된 장기순환기금 1억원, 12억원, 本會의 동우장학회 설립기금 3억4천만원, 개교70주년장학금을 비롯한 각 학과 및 의부장학기금 34억원, 연극영화학과 발전기금 1억4천만원, 서화작품 1억원 상당 등이다.

## 신규 교수 41명 충원

## 95년 1학기 서울 19명, 경주 22명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초빙 심사결과 서울캠퍼스 19명, 경주캠퍼스 22명(일반계 열 5명, 의학계열 17명) 등 총 41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었다.

구립 6일 학과심사를 마친 후 총장면담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교수임용은 당초 79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원합평기회를 앞둔 타대학의 교수충원과 맞물려 이중 지원원을 한 지원자와 학과에서 합의를 보지못해 보류요정이 들어온 학과로 인해 41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의 전공이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을 들여 신규 교수충원보류를 요청한 학과로는 서울캠퍼스의 전산통계학과 학교를 비롯해 예전에 신규 교수수집원보류를 요청한 학과로는 서울캠퍼스의 전산통계학과 학교를 비롯해 경찰행정학과,

정보관리학과, 생명지원경제학과, 국어국文學과, 지리교육과, 연극영화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등이며 경주캠퍼스에서는 선화학과, 일문학과, 전산통계학과, 경영학과, 정보산업학과 등이다.

### ‘95 사업계획 확정

#### 불교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원장=서윤길)은 금년도 사업으로 △불교학보 제32집 발간 △한국학 박사상사개관(중국어판) 발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불교전적 사전 발간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연구 △Dictionary of Korean Buddhism(영문판) 발간 등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이병화동문 정치문제 쉽게 풀이

###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이병화(64정치·부산여대 교수) 동문이 지난 10여년간 대학 강단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내용을 총리정리하여 ‘정치이론과 한국정치(세종출판사刊)’를 펴냈다.

이동문은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에 대해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학이 정체성의 위기와 적설성의 위기를 만나게 됨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현실을 꽤 광범위한 관점으로 분석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정치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편을 들어 그동안의 글을 정리

하고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하는 사회현상을 설명 예측하는 학문의 주체성이 요청된다고 강조하는 이동문은 이 책에 우리의 정치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을 소개하면서, 현대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적 문제들도 각 장의 말마다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과 현실의 간접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있는 전망을 다루려고 하였다.

‘정치이론과 한국정치’는 반드시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 있으며, 현대의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면에서 이어짐>	▲이상일(78경영)=20	▲전은영(74화학)=15	▲최국선(66국문)=15
▲우광철(89경영)=20	▲이석기(88지교)=15	▲전인홍(89법학)=15	▲최규식(49불교)=15
▲우재태(71법학)=15	▲이성규(89경제)=15	▲전진우(56정외)=15	▲최근호(93인철)=15
▲유귀동(64정외)=15	▲이성환(79경행)=15	▲정국립(61정외)=15	▲최민석(74법학)=15
▲유동우(59경제)=30	▲이신백(75농학)=15	▲정석봉(53문문)=15	▲최상돈(70학부)=15
▲윤경수(58영문)=15	▲이이양희(82경원)=15	▲정석구(49문학)=15	▲최상선(83교원)=15
▲윤광성(73국문)=15	▲이영규(75수학)=15	▲정수현(90한의)=15	▲최성안(57사회)=15
▲윤석운(85경영)=15	▲이의우(50불교)=15	▲정승자(51정외)=15	▲최영기(59경제)=15
▲윤이웅(88경원)=15	▲이용호(94정외)=30	▲정영훈(94화계)=15	▲최영태(77행원)=15
▲윤재중(77경영)=15	▲이인숙(61화학)=10	▲정윤섭(85경영)=15	▲최안철(61경제)=15
▲윤철중(87화계)=15	▲이장수(69인학)=15	▲정진규(91경원)=15	▲최이남(71법학)=15
▲윤태준(92경제)=15	▲이재홍(82경원)=15	▲정준덕(60법학)=15	▲최홍식(77대원)=15
▲이계도(93경원)=15	▲이정길(78경원)=15	▲정태수(71법학)=15	▲최홍길(62경제)=15
▲이광희(86식공)=15	▲이종운(91경원)=15	▲정형진(62경제)=15	▲최영기(59경제)=15
▲이구남(62국문)=15	▲이태경(67경계)=15	▲한영준(73무역)=15	▲최현경(77행원)=15
▲이근식(60사학)=15	▲이태수(73경영)=15	▲조득현(90수학)=15	▲한하균(55국문)=15
▲이근오(64국문)=15	▲이혜방(64화계)=15	▲조용자(61무역)=15	▲한승우(72경제)=15
▲이기하(86경원)=15	▲이현수(61인학)=15	▲조원화(69행원)=15	▲한승관(70경영)=15
▲이기경(79공경)=15	▲이홍근(80경원)=15	▲조은호(74사학)=15	▲홍세길(91경영)=15
▲이덕근(89전산)=15	▲이희경(75경행)=15	▲조한운(65상학)=10	▲홍효기(73농경)=30
▲이무영 = 15	▲이현숙(63정외)=15	▲주부남(61경제)=15	▲홍경환(88교원)=15
▲이병국(73경행)=15	▲임동규(94농학)=15	▲주성경(65상학)=15	▲황성연(73무역)=15
▲이병준(87화계)=15	▲임용식(71법학)=15	▲지정남(72경원)=15	▲황승호(92인원)=15
▲이상화(71법학)=15	▲임용식(71법학)=15	▲차길현(87경원)=15	▲황인남(93기원)=15
▲이상운(73경영)=15	▲장경천(64법학)=15	▲차영희(66사학)=15	▲황종태(60정외)=15
▲이상운(59법학)=15	▲장화동(66법학)=15	▲차지영(61생물)=15	▲황희기(73농경)=3,280
▲이상운(78경원)=15	▲전영선(76식공)=15	▲천기철(68국문)=15	게 누계=12,260

▲이상운(73경영)=15	▲장경천(64법학)=15	▲차지영(61생물)=15	게 3,280
▲이상운(59법학)=15	▲장화동(66법학)=15	▲천기철(68국문)=15	
▲이상운(78경원)=15	▲전영선(76식공)=15	▲최광평(71경행)=15	



本人の  
近親者  
の  
贈り物  
を  
贈ります。

## 경찰계 同門 대거 인사이동

경행과 동문들을 비롯하여 경찰계 동문들의 송진·수평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경행과 동문들의 승진이나 내역을 보면 ▲김대원(68) 동문이 구립 27일자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보직발령 받았으며, ▲김서영(70) 동문은 지난달 17일자로 경무관으로 승진해 해양경찰대 경비부장으로 보직발령됐다. 1월 23일자로 행해진 총경급 영전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재태(67) 종로경찰서장→경찰청 인사과장 ▲오준창(67) 전북교통과장→전북진안경찰서장 ▲김영화(67) 전남 꼽성경찰서장→전남나주경찰서장 ▲윤종우(60) 경찰청경비3계장→경북청 송경찰서장 ▲김관근(70) 부산 청 형사과장→서울서부경찰서장 ▲최광현(71) 서울정정보1

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 ▲이희경(72) 강안청사과장→강원평창경찰서장 ▲권지관(76) 경찰청외시2과장→경찰청교통기획과장  
이외에도 ▲김종우(70경행)→서울형사부장 ▲이부영(71 경행)→본청방법국장 ▲배희선(65), 이윤조(90행원)→경무관승진 ▲정나진(83행원)→본청형사과장 ▲길윤근(83 경행)→서울경찰청 보안심의관 ▲천사령(91행원)→본청조사과장 ▲김기영(71불교)→본청정보3과장 ▲김명수(70행정)→서울중랑서장 ▲김용화(행원)→대구경찰서형사과장 ▲유정근(84행원)→경기청 방범과장 ▲이경범(69경행)→군포서장 ▲박순원(89행원)→강원청보안과장 ▲김성배(행원)→경기청정보과장 등이다.

## 釜山 문인회장에 피선

### 金尙勳 동문



▲제11 대 부산문 인협회회 장에 金尙勳 (81 행원) 부 산동창회 회장이 선출됐다.

현재 부산 일보사 상무이사 겸 주필인 金尙勳은 문단에서 시조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문학박사와 정치학박사를 동시에 취득한 수재이다.

지난 1월 17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3백여 문협회원

들에 의해 피선된 金尙勳은 앞으로의 문협운영에 대해 “문학의 중앙집중화를 타파하고, 문학의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소명의식과 신념정신으로 향후 3년동안에 부산문단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金尙勳의 피선을 통해 동국인의 문단지끼기 전통과 역사는 동국인의 억척스러운肺의 소신임이 재확인되었다.

### 원광대 총장이임

#### 金三龍 농문



▲金三龍 (56 불교·원광 대교수)  
동문은 구암 20일 원광대 제

6대 총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임식을 가졌다. 같은날 金三龍은 ‘고희기념 논문방정식(소태산 대종사의 원불고사상, 마한 백제문화와 미륵사상)’을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 新春문예 時調당선

#### 沈鍾善 동문



▲沈鍾善 (71 국부) 동문이 95년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에 당선되었다.  
심사위원을 맡은 金尙勳부산지부회장(부산일보주필)은 ‘雪嶽을 다녀오며’란 제하의

沈동문의 시조를 당선작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동양 시의 전통을 잘 살려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지평중·고 동문회장

#### 朴壽天동문

▲박수천 (77 행정·本會 감사, 새한종합금융(주)장) 동문은 구립 고양인 시평

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직에 제2대(4연임) 되었다. 총동문은 평소 남다른 열의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 온화하고 친화력이 있어 양평군내에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다.



### 結 婚

▲윤봉성 (63동생·동국기회(주) 회장) = 1월 19일 광향터 미널에식당에서 장남 결혼

▲허길남 (67동생·경남가 든대표이사) = 12월 15일 삼성동 뉴월드호텔에서 장녀 결혼

▲홍운표 (68정치) = 12월 2 일 천주교 암구정 성당에서 차녀 결혼

▲김학준 (69정치·통일공예사장) = 12월 2일 광향터미널에서 차녀 결혼

▲박영상 (94경원·님한강 개발(주) 대표이사) = 11월 26일 의료보건회관에서 장남 결혼

▲김재익 = 12월 14일 천주교 서초동성당에서 장녀 결혼

▲유진수 = 12월 16일 장녀 결혼



▲김갑수 (前동국학원이사) = 1월 26일 별세

▲박은규 (61정치·대동기업(주) 회장·본회부회장) = 1월 6일 고진상

▲탁연복 (64법학·한진종합건설(주) 인천지점장) = 12월 24일 고진상

▲조은구 (68경제·(주) 동양철강대표이사) = 1월 8일 부친상

▲김여경 (71농학·삼화기획대표이사) = 1월 11일 부친상

▲김태권 (상공지원부정책실장) = 1월 12일 모친상

### 그리고...

▲김윤목 (93행원·한국뉴미신(주) 대표이사) = 11월 26일 인터콘티넨탈 대연회장에서 JC특우회상 취임

▲우창우 (67동학·(주) 동명인쇄사 대표이사) = 12월 22일 동명인쇄 개업

### 구두를 손질합니다.

#### 말표액체구두약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한번만 살짝 닦아도 광택이 나고 손에 묻지 않아 편리합니다.

- 가죽 영양제인 라놀린과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 가죽을 보호하며, 자연스럽고 우수한 광택이 납니다.
- 원터치 펌프로 펌프 베개가 편리합니다.
- 100회 이상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말표 액체구두약

MALPYO INDUSTRIAL CO., LTD



구두솔이 달려있는 핸드백속의 구두약 -



김강 브라운 적색 적록 푸른 턱색

# 전학이념에 가장 충실한 支部

## 불교대학원 동창회

출범 2기  
를 맞고 있는 불교대학원의 지부지회인 「동창회」는 1995년 2월 13일(月曜日)에 열린 활동으로, 그간 활동에 들어 두드리고자 있다.

불교 대신 구현이라는 모교의 전학이념에 가장 충실히 함께 활동을 꾸려 나가고 있는 불교대학원은 이달에 있을 하위수여식에서 5기를 배출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동창회 자체 조직의 역량면에서나 그 의욕에 있어서는 타지부지회의 수준을 높기한다.

특히 지난달 23일 김성호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계획에서부터 동문들의 참여까지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다.

김회장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실 및 범회장 마련 △불교대학원수료자(6기까지)를 전위 담당해 결집시킬 수첩 제작 △총동창회 정식 가입으로 중앙조직과의 유대 강화 △5월말 불교대학원의 단합을 위한 하계수련법회 실시 △불교대학원 수료자 전원에게 법사자격증 발급(2년 수료자에게 대학원장 명의로 발행하며, 1년 수료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회장은 이 공약 중 앞의 세항은 동창회가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취지이며, 나머지 항은 회원간의 화합과 사기양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불교대학원동창회는 회장선출을 위해 구립 19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

고 각 기별 5명씩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민장일치로 김성호동문을 회장에 선출하였다. 이어 지난달 23일 타워호텔 철코비룸에서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동문들에게 공식적인 인준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동창회기 입장으로 시작하여, 삼기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정인악·전임회장 이임사, 김성호 신임회장 취임사, 내빈축사, 전임회장과 이재성 전임 사무총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각 일원 임명장 수여, 상품권 추첨, 공연 및 여종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대학원동창회는 동문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호와 결속의 광장이며, 이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찾아 낼 수



▲ 신년하례식 이후 활동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성실히 따른다면 우리의 도임이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더욱 넓내고 모교의 발전과 항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취임식장에서 김회장은 불상 10점을 기증했고 전 동문들에게 小塔 1개씩을 선물했으며, 동국대학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박현성님은 동창회 발전에 대한 축원을 해 주기도 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월된 동창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이직까지 갖추지 못했던 사무실과 법회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대학원동창회의 회장은 불교대학원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회장이 운영하는 불교미술관(종로구 견지동 38-2, 전화 733-4800)을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다.



▲ 연말의 '동국인의 밤' 행사 전경

本紙에서는 이번부터 총동창회 산하의 각 지부지회를 소개하는 난을 신설했다. 지면을 통해 각 단위의 현황과 발전상을 소개하도록 타 지역 및 직장별 동문회와 이해와 교류를 넓힐도록 하는 것이 기획의도이다. 이 지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문회는 본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지부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이번 첫회는 부산동창회지부를 소개한다.

<편집자註>

총동창회 산하의 지부지회

중 최대의 규모와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곳은 단연 부산동창회이다.

현재 부산동창회는 金尚勳(81행원) 회장을 구심점으로 손승환(61정지·시평시장보좌관·상임부회장 등 820여명의 동문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동창회의 시작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지부지회의 모범이다.

김길정(57경제) 前회장으로 부터 바トン을 넘겨받아 부산동창회를 1년여 넘게 이끌어 오

고 있는 김회장은 '궁지—동국인의 자긍심 찾기, 친목—동문간의 유대강화, 모교—교계발전이 나의 발전, 협동—만고 불번 유익한 동국인'이라는 4대강령을 운영방침으로 삼아 동문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부산동문회에서 실시한 사업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그중 긍정적인 사안만 추려 보면 우선 이동범(주식회사 오양건설 대표 65법학) 등부의 회사내의 사무실에 전용전화를 가설해 지역동문들이 긴밀히 연락하고 모일 수 있는 토태를 마련한 점이다. 또한 6월에는 '동국인 통번대학회'를 개최해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대동의 정을 마련했

## 在부산 동창회

다. 부산지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모임인 동국회, 교직회, 경우회, 동산회, 대학원회, 한의사회도 5차례의 합동 회의를 가졌으며, 이사회 및 임원회도 12차례나 열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동국인 체육대회'와 '한의사의 체육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석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연말의 '동국인의 밤' 행사를 끝으로 94년 사업을 마감했다.

김회장은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 올해도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최고의 동문회'라는 아성을 지킬 작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계획도 이미 마련해 두었다. 현재의 820여 회원을

1천명까지 늘려줄 예정이며,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동국인 등번대학회', 낚시대회 및 사찰탐방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기존의 소모임들도 더욱 활성화시켜 동산회, 승강회, 끌프회, 농학회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결실한 세정도 예년에 비해 대규모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김회장은 "1천5백만 원까지 재정을 확보해 유익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한다.

현재 부산동문회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9-10, 부경빌딩 2F (주) 오양건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화는 441-9934이다.

## ■ 물은 생명의 근원, 좋은 물을 많이 마시자

### • 선선

무색, 무미, 무취의 천연 지하 암반수로 각종 미네랄과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신선한 물이어야 합니다.

### • 순수

각종 홍채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유해 미술생물이 함유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어야 합니다.

### • 쾌적

맛이 깨끗하고 산뜻하며 마실 때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물이어야 합니다.

### • 자연수

첨가물이 없는 자연수로 증성 또는 약알칼리성의 건강한 자연수 그대로여야 합니다.

속리산생수 반석음료(주)  
대거상사 서울영업소

대표 전상열(66법학)  
성북구 정릉동 427-6  
대표전화 : 914-1563



신임총장 宋錫球 동문을 만나

**“건학이념으로 동국발전 기여”****인터뷰**

교 제13대 총장에 당선되어 분명한 송석구(62학번) 동문을 만나 당선소감과 교도의 발전방안 등을 물어 보았다. 송동문은 비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었다.

**▲당선소감은**

—먼저 일을 하도록 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동국발전이라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 저는 이기회를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도가 시대에 부응하는 연구와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토대로 삼겠습니다. 교도가 민족대학, 세계대학으로 비상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는 인식 아래 이미 선거공약에서 “높은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다음과 같습니다.

**▲총미당시의 공약은**

—요약해 말씀드리면, 1천 억모금, 일산제3캠퍼스건립, 불교종합병원건립, 신임생정원규모의 기숙사건립, 수의사업회보, 교육·행정개혁, 교수수역구경개선, 경주캠퍼스지주적 운영체제확대, 포항병원부지연내매입,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과 시대적 요

구에 맞는 실용교육설시, 학사행정과 경영의 공개 등입니다.

**▲개교1백주년을 맞는 모교의 최대현안과 해결방안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제고가 가장 급선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종합병원건립과 제3캠퍼스건립,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재정 확보는 수의사업전개를 비롯해 이천만불자들의 의식전환운동, 불교교인 전국순회법회 및 동문들의 적극적 모금유치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현안은 ‘대학종합평가’이며, 모교의 위상에 영향적인 작용을 하리라 봅니다. 사실 당장의 모든 역량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총동창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동국발전은 세단, 종단, 학교를 비롯한 동문들의 대단합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종동창회는 동국발전의 주체, 중요한 지원체가 돼야 하며 앞으로 대회의 자리 마련과 함께 기획하겠습니다. 학교와 총동창회의 긴밀한 유대는 학교와 동문 여러분의 발전전대가 될 것입니다.

**▲10만동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교외적으로 학교위상의 확고화에 혼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동문들은 제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 무관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동문여러분께서 주제성과 자긍심을 기질 만입니다. 교도는 불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한국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비약적 발전을 위해, 그리하여 세계적인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동국인민의 풍토 만들자****임원수첩 무료제작 기증한 한진정판 朴賢雨 동문**

1월19일 오전, 군데군데 남아있는 눈을 밟으며 화양동에 소재한 한진정판을 찾았다. 붉은 벽돌건물 앞쪽에 내걸린 “한진정판”이라 한판이 한눈에 들어왔고 선글라스에서 윤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인쇄업체의 대표이사는 83년 국류과를 졸업한 朴賢雨 동문이다. 아직 30대의 헛기왕성한 시기인만큼 회사의 경영방침은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사가 적극적이며 저돌적이다. 그런 청구는 아닙니다 군제당장 일술이 밀음직한 인상을 풍긴다.

사무실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차동문은 타입제에서 업무차 방문한 담당자와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가 본 기자를 보고 반기어 손을 내밀었다.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사장실은 넓도마니 데려와 있지 않았다. 늘 직원들과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차동문의 팔랑이 그대로 반영된 문인듯이다.

차동문이 경영하는 한진정판은 종합인쇄업체로서 원색분해기(칼라스캐너)를 비롯한 제판시설 일체와 8색 상업용전기 1대, 4색 대국전인쇄기 2대, 대국전 2색인쇄기 1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쇄물이라면 찍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본기자가 장담한다.

포스터, 리플렛, 종합 카탈로그, 상업용전단에서부터 각종 책자 및 출판물을 이르기까지 대량인쇄물을 생산에 필요한 자동공정시스템을 원벽하게 갖추고 이를 운용할 기능공들까지 숙련도를 자랑할만하기 때문이다.

1층의 인쇄공장에서는 개봉관의 영화포스터가 현란한 색상으로 쉽지 않게 꺾혀나왔다. 이름을 알수 없는 크고 작은



▲ 잘 갖춰진 인쇄기처럼 朴동문은 사업과 동문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기계부터 독일제 멀티마크가

선명한 인쇄기까지 기계전시장을 병설케 했다. 차동문은

부분의 기계가 10억원을 넘는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계단을 올라서 사리잡고 있는 제판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정밀도를 보증하는 렌즈를 비롯해 원색분해기들이 늘어나서 있었고, 직원들은 필름을 들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화양동의 공장은 한진정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곳은 매입인쇄공장 빛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총 부부로의 본사 및 영업소와 김포를 품부리의 윤전인쇄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1983년도에 설립하여 현재는 자본금4억원에 5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굵직한 인쇄업체로 성장했나니

이 모든 것이 차동문의 혁기와 불굴의 집념, 끊임없는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은 듯하다. 워낙 새로운 인쇄업체들이 속출하는 데다가 모든 업체들이 인맥과 학연으로 묶여 있어 매듭을 풀고 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한

다. 즉 영업부분이 차동문의 핵심이다.

회사를 떠나 총동창회와도 차동문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대체로 중장년의 선배들이 대부분인 동창회에서 차동문은 소장파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비를 들여가며 임원수첩 1천 권을 제작해 총동창회에 기증했다. “동문회합과 동창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소장과 달리 애기 동창회에 대한 그의 애정은 노신배들 못지않다. 항상 업무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생각중에 하나가 동문간의 결속이라 고 한다. 타대학출신들의 동문에 관한 태도는 거의 광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사를 제쳐두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고 전한다.

“일단 동국대학교의 문을 나선 이상 우리모두는 보이지 않은 끈으로 굽이 묶인 동국인이며, 먼저 자리잡은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성장한 후배들이 다시 새로운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차동문의 끝말이다.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총동창회 회장단 일동**

▲ 고 문 박재우/기획실호텔/대표이사 0561) 745-3031

김기원/기획실 경북 경주시 신평동 375 0561) 42-5503

▲ 회장 이두천/기획실 삼창기업(주)/대표이사 0522) 61-0011

▲부회장 김경오/기획실 신라의원/원장 0561) 43-7575 (2기회장/경주지역회장)

권순이/3기 세화 티자 동법 경리 학원/원장 0561) 772-6662 (3기회장)

서상호/4기 한미주유소/대표 0562) 75-0202 (4기회장/포항지역회장)

김무홍/5기 버스민물횟집/대표 0522) 38-2366 (5기회장)

이도형/6기 오성중기/대표 0522) 73-0900 (6기회장)

이진구/6기 유성건설(주)/대표이사 0561) 749-5311 (7기회장)

이태웅/7기 동양특수강(주)/대표이사 0522) 92-3399 (울산지역회장)

전안호/8기 (주) 대원철강/대표이사 0562) 85-6082/3 (8기회장)

이두원/9기 정명사/대표 0562) 87-1828 (9기회장)

손용락/10기 대성건재사/대표 0561) 43-5956 (10기회장)

▲ 감사 이도우/2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0561) 41-5007

김찬성/3기 전문건설공제조합 포항지부 0562) 83-1529

▲ 사무국 안정원/6기 울산원예조합/이사 0522) 46-8442 (사무국장)

김정원/6기 대동전력(주)/대표 0522) 49-6200 (총무부)

김경호/1기 동국대학교 0561) 770-2473 (조직부장)

김웅렬/1기 보문개발(주)/대표 0561) 748-8100 (홍보부장/1기총무)

전현준/1기 울산하원/원장 0522) 43-8984 (사업부장)

▲ 간사 임상록/2기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0561) 770-2093

(2기총무)

홍병희/3기 황성국민학교 0561) 749-4561/2 (3기총무/경주총무)

반상철/4기 반상철물변학원/원장 0562) 74-1444 (4기총무/포항총무)

정선진/5기 경남 안산군 하북면 순지리 596 0523) 83-3887 (5기총무)

이감우/6기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52-41 0522) 68-9972 (6기총무)

이무근/7기 경주시청 서무과/계장 0561) 748-9024 (7기총무)

공신일/대진자동차 부품센타대표 0522) 76-4949 (울산총무)

김완도/8기 코오롱스포츠 포항특육점/대표 0562) 46-4488 (8기총무)

김명찬/9기 보전기업/대표 0522) 36-0671 (9기총무)

한병열/10기 동오개발/대표 0561) 749-1122 (10기총무)

## ▶ 자연과 우리의 만남-

# 누가 21세기를 준비하는가?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동방  
 동방은 종합건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에서 유통, 생활레저에 이르기까지 21세기 건설미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하여 오늘 동방이 있습니다.



#### “자연과 우리의 만남”-동방이 실현합니다.

“자연과 우리의 만남”으로 인간에게 최적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동방의 공간창조 - 종합건설로 쌓아온 동방의 첨단기술력과 자연을 소중히 하는 기업정신으로 보다 폐적하고 살기 좋은 건설문화를 창조합니다.



#### 풍요롭고 폐적한 주거문화 - 동방이 실현합니다.

미래 주거문화 창조를 통한 동방의 새로운 모습과 자세 - 동방은 종합건설로 쌓아온 첨단 기술력과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정신으로 더욱 풍요롭고 폐적한 주거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밝고 건강한 레져문화 - 동방이 개척해 갑니다.

활기찬 사회와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레져사업을 열어가기 위해 동방이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레져산업 - 인간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도전과 창조의 의지로 언제나 앞서가는 동방이 되겠습니다.



## 주식회사 동방

代表理事 李鍾基

(71년 경영학과 졸업)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809-3번지  
 TEL: 625-8181(代), FAX: 625-2580  
 서울사무소 TEL: (02) 782-5622-3, FAX: 782-5624